

IV | 보험회사 경영과제

1. 물가상승과 실손보험의 손해율관리

■ 2011년 들어 물가상승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으나, 이러한 물가상승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.

-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4%대를 기록함.
- 외부충격에 약한 유류 및 농산물을 제외하고 산출한 근원물가도 5월 들어 전월대비 3.5% 상승함.

■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의료비와 공임 등 손해액과 인건비 등 실제사업비의 증가로 실손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.

-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갱신 시 보험료 조정으로 물가상승에 대응할 수 있으나, 그 대응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임.
 -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보험소비자는 가격인상 시 갱신을 포기할 수 있고, 결국 위험도가 높은 보험소비자만 남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어 가격 조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.
-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을 것이나, 상해·질병 등 건강보험은 상당한 손해율 상승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임.
 -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의 특성상 역선택의 영향이 크지 않고, 2011년 2월부터 시행된 안정화 대책과 같은 제도개선으로 원가상승 부담을 상쇄할 여지가 존재함.

■ 따라서 보험회사는 비용관리, 상품구성 개선 등을 통해 물가상승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.

- 신속한 보상과 사업비 개선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버퍼를 조성함.
 - 보험사고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추정손해액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될 사항임.
- 보험금 지급 패턴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험종목의 구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, 재물보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물가상승은 물론 아직 판매가 활발하지 않은 신성장영역의 개척도 겸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임.

2. 새 회계기준(IFRS) 적용에 따른 자본변동성관리

- 2011년 4월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이 의무·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변동성 관리가 중요해짐.
 - 대다수 보험회사는 FY2011 첫 분기부터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.
 -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회사, 법인격 없는 조합, 파트너십, 특수목적회사(SPC) 등을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함.
 - 또한 모든 보험회사는 연결기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, 분·반기보고서를 분·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에¹⁰⁾, 연결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 전에 제출하여야 함.
- 국제회계기준 적용은 보험회사의 금융자산보다 준비금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10) 2년 이후부터는 45일 이내임.

-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, 퇴직급여 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나, 자본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1단계 보험회계기준¹¹⁾ 적용되는 보험부채 (준비금)회계임.
 - 대부분 시가로 평가되는 금융자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감독규정에서 회사의 경험발생률로 변경되는 것이나 자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¹²⁾.
 - 반면, 준비금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어 회사에 따라 자본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.
 - 손해보험의 경우 지급준비금의 측정 대상과 항목이 늘어나면서 준비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 - 그동안 사업비로 분류되어 온 손해조사비는 지급준비금 항목으로 편입됨에 따라 준비금과 요구자본량을 증가시킬 것임.
 - 장기보험(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)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의 할인율 변동과 보증/옵션 부문에 대한 평가가 자본변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 - 미경과보험료와 보험료적립금에 대해서 장래 추세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므로 그만큼 자본변동이 발생할 것임.
 - 특히, 그동안 할인율로 사용해 온 과거 자산운용수익률과 향후 사용할 미래 자산운용수익률 간의 차이가 클수록 보험회사가 추가로 적립해야 할 준비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음.
- 안정적 성과를 유지하면서 자본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기업 가치와 직결되므로 자본규제나 회계변경 등 규제변화로 인한 영향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.

11) IFRS 4 Phase 1.

12) 이에 감독당국은 기존 감독규정보다 낮은 경험률이 적용되어 충당금 감소가 발생할 경우 그 감소분을 자본계정에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함.

- 자산과 부채의 종합관리라는 측면에서 자산구성과 상품구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.

3. 시스템차원의 거시건전성 금융감독체계

-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, 이러한 감독체계 변화에 보험회사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음.
 - 금융안정위원회(FSB) 및 국제감독자협의회(IAIS)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입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.
 - 위기 이전의 감독체계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미시적 건전성 감독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.
 - 그러나 위기 이후 미시적 건전성 감독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차원에서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.
 - 따라서 향후 미시건전성 감독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감독체계가 상호보완적으로 금융규제의 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.
- 특히,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주요 위험관리수단으로 위기 상황분석(Stress Testing) 활용이 증시되는 경향이 있음.
 - 첫째, 위기상황분석은 감독자 및 경영자가 가상적 위기상황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처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험 관리수단임.

- 둘째, 위기상황분석은 각 보험회사의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로 인해 경영 또는 영업전략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대응가능하게 함.
- 셋째, 위기상황분석은 보험계리모형과 건전성 자본규제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을 수 있는 경영진에 보험계리의 실행모형과 자본규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.